“월간 ‘불교’, 만해 스님 통해 대중불교 실현”

태고종, ‘창간 100주년 학술대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개최
전문가들 ‘불교’ 역사·시사성 조명
상진 스님 “만해 사상 新조명 계기”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은 12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월간 창간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024년 창간 100주년을 맞은 태고종 총무원 발간 월간지 〈불교〉가 만해 한용운 스님이 대중불교 실현을 위해 주목했던 매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월간 〈불교〉 창간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월간 〈불교〉가 갖는 역사성과 시사성’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월간 〈불교〉 발간의 의미와 시사점을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연구원은 ‘대중불교의 원류와 계승-월간 〈불교〉 속 만해 한용운의 발자취’를 통해 월간 〈불교〉의 시대별 발간 과정과 그 안에서 만해 스님의 유훈들이 어떻게 계승돼 왔는지를 살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1924년 불교교단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월간 〈불교〉는 1931년 만해 스님이 사장으로 취임하며 변화를 맞았다. 편집자이자 발행인이 된 만해 스님은 1931년 7월 84·85합호부터 1933년 7월 108호까지 잡지의 간행을 담당했다.

이 시기 만해 스님은 지면을 통해 식민지 조선불교에 내재된 체재의 모순을 갈파하고 불자들의 각성과 계몽을 주장하는 ‘조선불교의 개혁안’ 등의 글을 실었다. 당시 만해 스님 글들의 요지는 정교분리 실현과 사찰령 철폐, 불교계 통일기관 수립에 있다. 이를 통해 “만해 스님이 지향한 것은 조선불교를 대중불교로 전환”하는 데 있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해석이다.

이 연구원은 “만해 스님의 논설은 1910년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설파한 불교의 근대적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식민지 불교정책에 내재해 지속된 모순을 직시하고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주적 개혁안에 중점을 뒀다”며 “1930년대 만해 스님의 〈불교〉는 일제에 대한 저항과 자주적 개혁의 발신처, 민족문화와 불교청년 세력의 숙성소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불교〉는 1933년 7월호 이후 명맥이 끊겼다가 1937년 다시 복간됐고, 광복 이후 1946년에는 제호를 〈신생(新生)〉으로 바꿔 발행됐다. 1959년에는 〈현대불교〉로, 1962년 8월부터는 〈불교사상〉이라는 잡지로 발행됐으며, 1967년부터는 〈불교계〉로 이어졌다.

1970년 5월 문화공보부로부터 정식 종단 등록을 마친 태고종은 곧이어 기관지로 지금의 월간 〈불교〉를 발간했다. 태고종은 발간한 〈불교〉도 종조 태고 보우 국사와 함께 만해 스님의 유훈 역시 계승코자 노력했다. 〈불교〉는 1970년대 만해 스님의 행적 발굴, 불교유신론 등의 소개, 만해 사상 관련 논설, 만해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엮은 연재만화 등을 게재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불교〉에 나타난 만해 스님 사상을 주목했다. 상진 스님은 “1924년 창간된 〈불교〉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그간 불교지는 일제강점기라는 우리 민족사의 어려운 시기에 창간돼 불교의 사상과 교리를 널리 알리는 문서포교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폭넓은 세계관으로 한국불교의 개혁을 이끌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발자취가 새롭게 조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선사, 땅 한평 불사로 ‘사격 진일보’

1월 1일, 경내 공덕비 제막
1년 8개월간 988명 동참해
산림청 소유 땅 매입 완료



도선사가 사부대중의 정성으로 이룬 ‘땅 한평 불사’를 회향하며 사찰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 불자들의 보시와 나눔 원력으로 그간 임대로 사용하던 땅들이 온전히 도선사 품 안으로 돌아오면서, 사찰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신행 중심지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는 1월 1일 경내 사천왕문 옆 공덕비 앞에서 ‘땅 한평 불사 공덕비 제막식’을 진행했다.〈사진〉 ‘땅 한평 불사’는 안양암과 사천왕문 주변 산림청 소유의 진입로(3230㎡, 약 978평)를 도선사 소유로 매입하기 위한 불사다. 2022년 시작돼 1년 8개월간 988명이 동참했고, 그 헌신과 나눔의 결실을 기리고자 공덕비를 세워 이날 제막식을 가졌다.

도선사는 그간 임대계약을 맺고 사용하던 산림청 소유 토지 매입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서울국유림 관리소와 협의를 시작했다. 적합한 토지를 도선사가 매입해 해당 토지와 교환키로 합의했고,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인 ‘땅 한평 불사’가 전개됐다.

지난해 9월 도선사는 여주 및 양평 일대 4필지를 매입한 후, 국유림위원회의 심의와 조계종,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았다. 2024년 12월 23일 산림청과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31일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했다.

주지 태원 스님은 “국가 소유 토지를 매입한다는 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전임 주지 도서 스님과 대중스님, 신도분들의 정성과 노력 덕분에 이번 불사를 성공적으로 회향할 수 있었다.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스님은 이어 “이번 토지 매입은 도선사의 다양한 불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 “안양암을 전통불교문화체험관으로 변모시켜 다양한 사람이 찾고 신행생활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이승현 조계사 신도총회장 “세계 1등 조계사로!”

12월 31일 대웅전서 취임법회
개금불사 기금 1억원 전달키도
28대 신도회 지도부에 부촉장



이승현 조계사 신도총회장은 개금불사 기금 1억원을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에게 전달했다.

“세계 1등 사찰 조계사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 합치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27대에 이어 28대 조계사 신도총회장에 취임한 이승현 회장이 지난해 12월 31일 경내 대웅전에서 열린 ‘조계사 제28대 신도회 무애 이승현 신도총회장 취임법회’에서 2년간 신도회를 이끌어갈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취임법회는 막중한 소임에 임하는 각오를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문 낭독으로 시작됐다. 이승현 총회장은 “한국불교의 중심 조계사에서 모든 불자의 염원을 담아 ‘세계 1등 조계사’를 목표로 내실을 다지며 외연 확장에 진력하겠다”고 서원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이 회장은 “조계사는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의자를 놓고, ‘베이커리 조’ 운영으로 맞춤형 포교를 꾀하고, 주차장을 정비하는 등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젠 외형 변화에 맞춰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발전된 외형에 걸맞는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모범이 되는 신도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2년간 신도회의 활동 계획도 전했다. 이 총회장은 “조계사 도량 성역화 불사를 이뤄내는 것은 물론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신도조직를 꾸리고, 국민 안정과 평화를 위한 선명상 대중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도회를 중심으로 갈등을 화해하는 중심이 돼 조계사 발전과 세계의 화합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 총회장은 ‘조계사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 원년의 해’를 맞아 개금불사 기금 1억원을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제28대 신도회 지도부에 대한 부촉식도 진행됐다. 주지 담화 스님은 이승현 신도총회장을 비롯해 김의정 명예회장, 박영환 자문위원장, 도영숙 사무총장, 정종란 남부법회장, 박정례 중부법회장, 홍순분 전각의례법회장, 장경태 종무지원법회장, 박경숙 포교법회장, 박수정 사회법회장, 서정숙 문화법회장, 김경숙·김상민·이윤희 부회장, 함정희·김춘미·변임숙 부자문위원장 등 임원들에게 부촉장을 전달하고 신도들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유주연 대불련 회장 “쉬운 불교 만들 것”

12월 28일 정기총회서 당선
와선대회·SNS 활성화 추진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제63년차(2025년) 중앙회장에 유주연 창원지부장이 선출됐다.〈사진〉

대불련 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경목)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62년차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유주연 지부장을 제63년차 대불련 중앙회장으로 선출했다. 유주연 중앙회장 당선자는 참석 대의원 98명 중 찬성 89표, 반대 7표로 당선됐다.

유주연 중앙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2025년을 시작으로 대불련이 한층 더 성장하고 여법하게 활동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포교와 전법에 힘쓰고 새롭게 불교를 접한 대학생 청년 법우들이 즐거운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중앙회장은 ‘가벼운(Positive) 불교, 깊어지는 우리’를 주제로 한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가벼운 불교’는 쉽고 재밌는 불교를, ‘깊어지는 우리’는 불교와 법우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한다는 의미”라며 “공약의 핵심은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다”고 말했다. 누워서 명상하는 와선명상대회, 신입 법우를 위한 불교 입문서 제작, 대불련 SNS·유튜브 활성화 등을 구상하고 있다. 김민재 기자



출강 및 통신 2025학년도 제34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 전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법사 양성의 독보적인 전문 교육 도량으로서 34년의 학풍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법사 활동 외연 확장을 위해 숲명상전문가 2급 자격 취득(산림청 민간자격증)의 기회도 겸비할 수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

☎ 02)733-1959 720-1836

불교 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 동영상미디어 강좌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5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한선빌딩 3층
홈페이지 : http://pubsa.net(검색창에 한국불교법사대학)